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세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강론 ●



그리스도의 열

열기봉신부

해마다 이 때가 되면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한다.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다. 다만,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소박하게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 × ×

이제 주님의 현존—아버지 안에 영광과 사랑—을 보증해 주는 것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하려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인간 모습을 붙잡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을 내 안에 되새기고 선포하는데 있다.

예수님의 일생을 지배한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요르단강에서 그가 받은 소명은 '아버지의 종'이 되는 소명이었고 그의 설교는 '아버지의 통치'였으며 그의 가장 깊은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생애가 아니었다. 과연 이 생애가 위대한 생애였던가 하고 의심해 볼만한 생애였다. 활동 무대가 너무도 좁지 않았던가 활동 기간이 너무도 짧지 않았던가, 재산도 아내도 자녀도 없었고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인 자기 영광도 없지 않았던가, 그러나 바로 여기에 위대한 생애가 있었고 교차원의 생애가 있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좀먹지도 녹슬지도 않는 보화를 가져온분, 아내도 자녀도 없었으나 차기에게 오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은 다른 이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자유로운 이가 있었던가!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꿈꾸어 보지도 못한 일생을 살았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생애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풍부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단순한 생애임을 보여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깊은 아버지의 뜻 곧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이다. 오늘 아버지 안에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중생의 것이요, 역사의 것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사랑의 열이 내 안에 영속되기 위해서는 흐트러진 나의 머리카락을 빗고 옷깃을 여미고 하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된다.

× × ×

높이 나르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 눈 앞의 공간 주위 먹는 까마귀의 눈은 창천을 나르는 봉황의 뜻을 모른다. 우리의 소명, 우리의 설교, 우리의 깊은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천상 천하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리라.

〈군산 문물동 천주교회〉

이 주일의 미사 해설

* 예수 승천 대축일 * (기도서 P. 305)

알렐루야, 알렐루야! 살아나신 주님께서 환호 소리 높은 가운데 아버지의 오른편 자리로 승천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은 예수승천 대축일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자 교회의 시대가 막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당신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미사는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심을 표시하는 성제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장1-11절 p.264)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구세사의 한 막이 내립니다. 그리고 둘째 막이 오를 것입니다. 성신의 시대가 오며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교회 안에 계시면서 동서고급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제2독서 (에페소 1장17-23절 P.438)

누구든지 구원받고 싶으면,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교회는 신비로운 모양으로 지상에 남아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복음 (마르코 16장 15-20절 P.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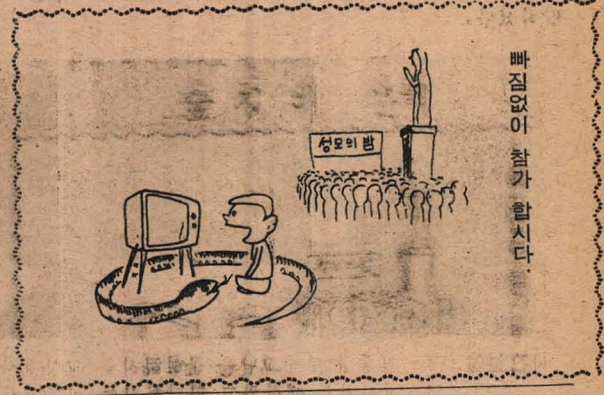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천상 천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지금부터는 교회가 세상 끝까지 퍼져 나가며 그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영성체 후 묵상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설교하시던 하늘나라와 그 정의를 우리 입으로 인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을 떠 지상에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자유롭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숲정이 산책



빠짐없이 참가 합시다.

교황 대사를 모시고 (2)

-교구 방문 제2일 (5월 7일)-

한 상 갑

교황대사 교구방문 이틀째는 방문성당이나 기관이 모두 전주 시내이다.

먼저 가톨릭센터와 여학생관을 방문하시어 현황 듣고 수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시고 바로 성모병원으로 떠났다. 대학병원과 예수병원의 틈바구니에서 고전(苦戰)을 하고 있는 성모병원의 현황은 안타깝지만 하다. 마침 새로 임명되신 김영일 원장신부님도 배석하셨다. 애로사항을 들으신 교황대사께서는 「카나타의 기술지원」이나 「인성회」를 통한 지원을 연구해볼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하신다. 설립 목적을 수행해 가며 적자운영에서 벗어날 길이 정말로 모색되어야 하겠다. 현황을 들으신 뒤 병원에 입원중인 김종택 부주교님을 찾아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따뜻한 자상함을 보여 주시었다.

이어 전동성당을 방문하신 교황대사는 “세세로 하나인 우리는 교황성화라도 하나되어 한가정을 이루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시다, 소금과 빛이 소리없이 제구실을 하듯이 좋은 가톨릭신자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불러 모으시오. 전주교구의 모(母)교회답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내시오.” 라고 당부하시며 작년에 예방했던 인류 복음화 성성 장관 뒤편 추기경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실학교 정문을 들어서자 6층전몰의 배란다에 늘어선 학생들의 박수와 함성이 노랫소리처럼 들린다. 종교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상히 물으시며, 매년 부활절을 앞두고 성심·해성 교직원들이 연수회를 갖고며 학생들은 성토요일을 쓴다는 답변을 들으시고 외국에서는 교황성 하나 교황대사의 방문 기념 방학이 있다며 특별한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신다. 김규승교장께서는 어버이날의 특별행사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셨다.

성실학교에서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즐기며 드시며 중요한 「구절판」을 보시고 펴 신기해 하신다. 식사후 잠시 교구청에서 쉬셨다가 방문일정에 없는 도지사께 예방하셨다.

황인성지사께서 진심으로 환영하시는 말씀을 전하자, 교황대사께서는 “교회는 사회 안에서 공동선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라고 전제하시며 “사회발전이나 인간계발은 물질적인 것만이어서는 안되며, 정신적인 발전을 그 기반으로 할 때 이를 참다운 발전”이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노력해서 정신적, 물질적 발전을 얻자”며 자리를 뜨셨다.

이어 해성학교를 찾으니 남자 맛이 풍진다. 손을 잡고 즐거워 하는 모습이라든가 싸인공세를 띄는 모습이 다르다.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정신교육을 위해 매일 아침의 「5분명상」 방송이라든가 5교시의 특별한 운영에 관심을 보이신 교황대사는 자리를 비우고(?) 계신 문정현 신부님의 이야기에 무어라고 하실 말씀을 못찾으신다. 순정이에 우뚝 솟는 순교자 현양탑에 현화와 기도를 마치고 해성학교를 뒀다.

노송동성당에서는 성체강복과 현황설명을 들으신 뒤 말씀을 통하여 “순교자들의 기념탑 앞에서 깨달은 진리는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하며,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자가 되라”고 당부하시며, “생명의 존엄성을 우습게 아는 현실을 개탄”하시며 질문이 없느냐고 물으셨다. 행복한 가정운동의 전주교구 사무국장인 조해형 사도회장(현 전북도교위 교육위원)의 “세계의 추세인 가족계획의 물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공의회가 가르침을 소개하시며 최근에 개발된 빌링스법과 행복한 가정운동을 소개해 주셨다.

바오로서원에 들리셔서 출판사업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수고하고 계시는 수녀님들을 격려해 주셨다. 수녀원에서 식사를 마치고 교구청에 돌아오니 저녁 8시 반이다. 방문 제2일의 일정이 끝났다.

〈教區 平協 事務局長〉



사진설명 : 1. 김종택 부주교님을 문명하시는 교황대사
2. 도지사를 예방하고 환담하시는 교황대사
3. 해성학교에서 방명록에 서명하시는 교황대사
4. 노송동 성당에서 질문을 받으시는 교황대사
5. 바오로서원에서 수녀님들과 대화하시는 교황대사

□ 교리 교실 ② □

마태오 복음서 개관

전 대 북

저자 : 복음서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는 저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마태오 복음서의 저자를 알아낸다는 것도 쉽진 않다. 빠빠야스는 “마태오 복음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회람어판 이전에 아람어로 기록된 예수의 언행을 사도 마태오가 한테 엮어 모은 책이었다”고 증명하며 이레네오도 이점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아람어로 된 마태오 복음서의 원본을 회람어로 번역하고, 거기에 여러 문헌을 첨가하여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를 형성했는지는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교회 전승은 “마태오 복음서는 사도 마태오에 의해서 저술되었다”고 믿어왔다.

저술 연대와 장소 : 일반적으로 마태오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서보다 후대에 쓰여졌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마태오 복음사가 마르코 복음서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에 의하면 약 60년경에 쓰여졌다는 마르코 복음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스도의 제림 및 세말에 대한 예언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데(마르코 13: 24) 반해 마태오 복음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세말을 분리해서 그 사이에 어느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다. (24: 29). 따라서 마태오는 예루살렘 멸망을 본 후에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다.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종교적 대결을 다루는 복음서의 내용으로 볼 때, 70~80년 사이에 팔레스티나 지방, 혹은 회람 문화권에 인접한 시리아(?)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저술 동기 및 목적 : 당시의 교회상황은 유대교의 영역을 벗어난 보편적인 그리스도교였지만 아직도 유대교와 투쟁해야 하는 상태하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태오는 유대인의 문화권내에서 유대 민족만을 상대로한 좁은 교회관을 벗어나 이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의식한 듯 하다. (28: 29) 그래서 마태오는 예수야말로 구약에서 약속되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창세기 12: 2)과 다위의 후손(사무엘, 하 7: 12)에게서 메시아는 탄생하여 왕권을 확립하리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1, 1-17). 또한 선민인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배척하여(8: 11) 십판을 받고 그대신 새로운 이스라엘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며 지상의 교회에는 거룩한 면과 동시에 죄스런 면도 있으니 교회는 자신의 고귀한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그 생활을 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 복음서는 유대계 그리스도교인들의 교리강화를 주 목적으로 기록되었으며, 다른 복음사가들에 비해 복음을 실천하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유대계뿐 아니라 이교계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도 쓰여진 듯 하다. 결론적으로 마태오 복음서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 의해서 승화되고 완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신약의 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마태오 복음서는 구약성서의 사상 노선을 보존하면서도 이스라엘인들의 좁은 교회관을 탈피해서 온 인류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오이 (48) 김병오



엘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일 금 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 원 준(야교버)

교우 여러분들을 특별 우대함

농약, 씨앗, 농기구

고 농 농 약 사

전주시 전동 1가 303의 7

점포 전화 ②4740번

박 태 수 (벨라도)

★교우 여러분께 특별 봉사★

전주 기아 용달사

차량번호 7-1058호

차주 김완식 (아오스딩)

회사 전화 ⑤1524, ③2874

연락처 자택전화 ⑥0439

●보세공 모집●(여자)

1. 연령 : 17세 이상
2. 모집인원 : ○ ○명

※수시 모집함

3. 연락처 : 전화 ②8466

전주시 전동성당 골목
김영함 (아오스딩)

교우들의 선물 센터

전자, 새살림, 기념품, 완구

아세아 종합 스토아

강영옥 (로모알드)

남문 신탁은행 앞

전화 ②4007, ②7007

◎교우 여러분께 특별 봉사함

새롭고 저렴한 연탄보일러 온돌 안내

한국 온수 산업사

전남북 총판, 기술보급소

군산지점 7211

부안지점 736

이리시 인화동2가65-16 (전화 4940)

한 등 압 (보이세)

※각 지방 대리점 구함

불러 주시면 언제든지

연 탄

어름 신속, 정확, 친절

배달하겠습니다

이 영 희 (다두)

◎전주시 전동성당 골목 (전화) ② 8 4 6 6

※ 공지사항 ※

1.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6월2(水)~5(土), 가톨릭센터, 회비 4,000원)
2. 홍보의 발을 맞은 언론인 간담회 (5월 31일(월) 오후 6시 가톨릭센터)
3. 젊은이들을 위한 야의 활동(둔율동, 중동, 월명동) 미사 및 야유회 : (6월 6일 10시반)
장소 : 군산 수원지 잔디밭 주최 : 연합 청년회 ◎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제3지구 중고등 학생 춘계 체육대회(6월 6일, 황등 분당)
5. 문신부님을 위한 헌금 누계 709,261원, 감사합니다.
익산 나환자촌 공소 교우들(3,800원), 본 교구 출신 광주 대진 신학생들(10,000원), 진안 동구점 공소(1,500원), 전매청 성화회(5,000원), 정읍 본당(13,655원), 문중숙(5,000원), 유관순(500원), 익명(3,000원), 배영근 신부(5,000원)

(중양) 주 임 신부 이 대 권
전화 ③3651 수석보좌 신부 한 김
③3874 제2보좌 신부 김 이
사 도 회 장 이 상 용

1. 영세식 : 29일(토) 오후 6시
2. 예수 승천 대축일 합동 야외미사 : 오늘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직자 묘지
3. 성모의 밤 행사 ① 어린이 - 29일(토) 저녁 7시
◎ 전신자 - 오늘 저녁 8시반(미사 7시반)
※ 준비물 : 묵주, 초, 미사포, 단채별 꽃 봉헌
4. 성심 부녀회 총회 : 6월 3일(목) 덕진능에서 - 9시반
성당에서 출발
5. 견진 예식 : 6월 6일(일) 오전 10시, 주교님 주례
견진자 특별교리 - 5월31일(월)~6월 4일(금)까지 매일 8시반부터
6. 방직거삼회 월례회 : 6월 6일(일) 오후 2시반

(노송동) 주임 신부 공 아 영
전화 ③7032 사도 회 장 조 해 형

1. 예수 승천 대축일 합동 야외미사 : 11시 성직자 묘지
◎ 본당 공식 미사 없습니다.
2.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각 구역장, 반장, 공소회장은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3. 애령회 소식 : 영구대 일절을 87,300원에 구입했음
4. 결혼한 후 입교하신 분들을 위한 혼인강박이 있으니 해당 교우는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5. 새 주민등록으로 인한 인감변경을 하겠으니 조합원은 도장, 새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조합에 오시오
6. 가정방문(인후동) : 6월 1일(화), 3일(목)
7. 성시간 : 6월 3일 저녁 8시 ◎ 많은 참석 바랍니다
8. ★ 축혼인 다리공(2일 11시), 본당 (5일 11시)

(덕진) 주임 신부 박 종 근
전화 ③2182 사도 회 장 김 용 환

1. 성모의 밤 행사 : 31일 저녁 8시
준비물 - 초, 묵주, 기도서
2. 젊은이와 학생을 위한 밤 (성가연습, 미사, 특별교리) -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 미사시간 변경 (토요일) - 8시반
4. 예비자 교리 : 주일 공식 미사후(회의실)

- ◎ 신자 1인 → 예비자 1인 안내
5. 어린이 성세식 : 31일 10시반 어머니 미사후
6. 신용 협동 조합 임원회 : 6월 5일 오후 8시
7. 사도회 확대회 총회, 성당 건립 위원회 창립총회 공식 미사후

(복자) 주임 신부 김 종 길
전화 ③5238 사도 회 장 조 성 료

1. 성모의 밤 행사 : 오늘 저녁 8시반
◎ 각 신심단체 - 꽃다발, 축시, 축장, 축도 봉헌.
2. 복자 부녀회 월례회 : 오늘 저녁 미사후
3. 중·고등학교 학생 친선(복자, 노송)체육대회 : 오늘 오전 9시 해성 교정에서
4. 반회합 : 6월 1일(화) 제9반 조마리아씨택 조마리아 반장(완산동) 2일(수) 제15반 양바울라씨택 서요한 반장(응골) 3일(목) 제16반 박마리아씨택 신세노피아반장(응골)
5.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6. 교우금을 완납하여 본당 운영 도움시다.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서학동) 주임 신부 오 현택
전화 ③2276 사도 회 장 박 장훈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 사도회 임원은 전원 참석 바랍니다.
2. 저녁 미사후 성모의 밤 행사 준비물 - 묵주, 초
3. 성가연습 : 미사전, 후에 있으니 성가집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신용 협동 조합 월례회 : 공식 미사후
5. 견진 희망자는 6월13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전동) 주임 신부 김 환철
전화 ③3222 보좌 신부 문 규림
사도 회 장 양 윤모

1. L.M 옥의 행사겸 예수 승천 합동 야외 미사
덕진능에서 ◎ 예물 봉헌 바랍니다.
2. 성모의 밤 : 31일(월) 저녁 8시 15분
※ 동대향 성가 경연대회
3. 어린이 미사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4. 견진 예보 : 6월 13일(주일)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창 계 류 신 태 인 음 정	예수 승천 야외미사	4,855원	제 3 지구	주 원 동 창 인 동 황 등	신용협동조합 특별교육	63,450원
		구리아 회, 아치에스 행사	28,785원			학생회 미전 개최	55,941원
제 2 지구	대 문 율 명 동 합	예수 승천 축일 야외미사	20,720원	제 4 지구	중 앙 노 송 동 덕 진 복 자 서 학 동 전 등	성모의 밤 행사	74,450원
		사도회 월례회	5,480원			예수 승천 합동 야외미사	30,960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샴	성모의 밤 행사 사도회 임원 개원 상임위원회 월례회	19,600원	제 5·6 지구	부 장 전 남 순 입	예비자 교리, 어린이 성세식	12,405원
		성모의 밤 행사	14,035원			성모의 밤 행사, 부녀회 월례회	24,945원
						신용협동조합 월례회	17,572원
						성모의 밤 행사	86,480원
						성모의 밤 행사, 청년회 월례회	원
						예수 승천 축일 야외미사	3,410원
						유치원 축성식 및 낙성식	7,500원
						성모회 친목 야유회	15,550원
						사도회, 주일 학교 교사회	원
						예비자 교리 가정방문	4,770원

* 인쇄 보광출판사